

##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고난주간 행사 통해 주님의 남기신 고난에 동참기로

죄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30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제3차 성례식 거행 장애인도 참여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20일 수요일, II부 예배 시간에 91년도 제3차 성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중윤 위임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성례식에서 59명이 학습을, 30명이 세례를, 23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9명이 입교를, 2명이 개종을 하였다. 특히 이번 성례식에는 16명의 장애인들도 참가하였다.

### 강해설교 테이프 보급 교회 소개 비디오테이프도

이중윤 위임목사의 강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테이프 보급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 ●카세트 테이프

홍해작전, 빌립보서 강해, 히브리서 강해, 다니엘 강해, 호세아 강해, 요나 강해, 아모스 강해, 창세기 강해, 요한복음 강해, 부부교양 세미나, 제3회 미래지도자를 위한 대학생 복음화대회

#### ●비디오 테이프

매주 설교, 충현요람(한국어, 영어, 일어), 홍해작전의 불길을 아시리로, 세계로(한국어, 영어, 일어), 김치(KIMCHI) 세미나(한국어, 영어), '90 아시아선교대회(AMC) 하일라이트

먼저 고난주간 동안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이 기도회에서는 이중윤 위임목사가 "십자가상의 칠언(七言)"을 설교할 예정이다. 27일(수) 저녁 7시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관하는 음악예배가 있다. 이 예배에서는 존 스테이너의 칸타타곡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연주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절정에 달하는 금요일인 29일에는 해 있을 동안

금식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생활절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식 등 모든 경사는 삼가하고 경건하게 지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28일과 29일에 제자훈련을 하지 않고, 훈련 기간을 5월 30일과 31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 제3차 충현복음심포지움 내일 개최

제3차 충현복음심포지움이 내일(3월 25일) 오후 2시에 전국의 신학교수, 신학생, 목회자를 초청하여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신학교육과 교회"라는 주제 아래 "신학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 "신학교 커리큘럼과 목회 현장", "신학교 단립과 목사(후보생)의 자질 문제"를 다

루게 된다. 따라서 이는 신학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 신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호진 박사, 이중윤 박사, 박영희 박사가 발제를, 허진 박사, 조종남 박사, 맹용길 박사가 응답을 맡는다. 운영팀 목사가 사회를 보는 개회예배에서는 이중성 박사가 설교한다.

### 3월 31일은 부활절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예식 거행

우리 교회는 3월 31일을 부활절로 지키며, 특별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는 감사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과 특별헌금을 하는 순서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녁 7시에는 시온찬양대의 주관으로 축하음악예배도 드릴 예정이다.

### 제4회제자훈련 21일에 시작



지난 3월 21일과 22일 충현기도원에서 제4회 충현제자훈련의 제1차 훈련이 실시되었다.

제1차 훈련에 참가한 직분자들은 정기봉 목사가 설교한 저녁 집회와 신표근 목사가 설교한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위임목사와의 만남, 김양훈

목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안경소 목사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 김찬곤 목사의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에 대한 강의를 통해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반별 토의가졌다. 이 반별 토의는 공동체 훈련과 함께 참가자들이 모범적인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자훈련원은 현재도 훈련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K 군에게

자네는 정말 행복자일세.

철책선 앞에서 조국을 위해 군인으로 수고하는 아들에 대하여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고, 밤낮으로 자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이 있으니, 자네야말로 행복자일세. 이 같은 복을 받은 자 누구며, 그것을 복으로 깨닫는 자 또한 누구이겠는가. 자네의 얼굴을 속히 보고싶네.

어제는 우리 교회 루디아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있었다네. 자네의 모친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자식 사랑을 하시면서 내게 자네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시어 오늘 새벽기도회 시간에 자네의 이름을 들어 기도한 후 이 아침시간에 편지를 쓰고 있다네.

기회는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것임을 알고 군인으로서, 성도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물이 되어주게.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자네도 기도를 쉬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

3. 20

이 중 윤 목사

### 이중윤 위임목사 저 《요한복음 강해2》출간



이중윤 위임목사가 주요 예배에서 요한복음에 관하여 설교한

내용을 모은 《요한복음 강해 2》가 발간되었다.

89년 12월에 간행된 《요한복음 강해 1》의 후속이기도 한 본서는 요한복음 5 장부터 9 장까지의 말씀을 심도 있게 강해한 것으로,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발견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충현동산 보수 및 묘지 조성 공사

우리 교회는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충현동산 보수 및 묘지조성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묘지관리 후원금(2만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을 기리는 뜻에서 이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 수납처는 동산관리사무실(소석관 102호)

### 성도의 교제

양금식 성도·이명금 집사(제16교구) 향나무, 모과나무, 주목 기증

### 에바다부 수화 교육

- 기간: 3월 30일~6월 8일
- 과정  
초급반(월·목): 김광식 선생  
중급반(월·목): 최성숙 선생  
고급반(화·금): 이준우 선생
- 장소: 소석관 109호 (에바다부실)

### 직원모집

- 직종: 장애아동조기교육원 교사, 도서관 사서
- 자격: 2년제 대졸 이상의 세레교인
- 기간: 4월 7일
- 문의: 사무국 총무과 장애아동조기교육원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 죽음을 통한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 12: 24-26)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경시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톨의 돈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철없는 어린이까지 죽여서 생애장하는 끔찍한 일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몹시 천대하시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1. 죽음과 부정의 원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해보면, 이 말씀은 결코 생명을 경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망을 이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란 결코 생명으로라야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과 부정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아니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라고 할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갈 2:20). 또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배하여 그러하니라”고도 고백했던 것입니다(갈 6:14).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과 부정의 원리는 죽음으로써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별

개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의 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 2. 원리의 적용

죽음과 부정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원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도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실천하려

하려는 그런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생명, 푸쉬케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푸쉬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보존하는 방법은 자기 의지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내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올 때에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마 10:38)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앞에 놓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통사를 함으로써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저 이름없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조차 주님께에서 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훈을 바로 이해하고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해야 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 3. 축복의 초청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희생의 원리를 실천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대리고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이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도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약속을 믿고,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대답해 증거했던 것입니다(딤후 2:11, 12).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지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날 우리들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 십자가사건은 부활사건의 전제

##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만이

## 그와 함께 부활할 수 있어

면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절망에 빠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본문 2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 적용의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배하여 그러하니라”고도 하였던 것입니다(갈 6:14).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과 부정의 원리는 죽음으로써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성된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서란 후배하나 속사함은 달로 새로워진다”고 했듯이, 우리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체이고, 그 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정의 원리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 1. 사순절의 유래

교회사에서는 부활절을 앞둔 40일간을 사순절(四旬節) 또는 고난절(苦難節)이라고 한다. 이것은 서방 교회에서 말하는 렌트(Lent)인데, 특별히 부활절 전에 교인들이 금식하는 40일간을 말한다. 이 말은 영어로 색슨어에서 '봄'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레크텐(Lencten)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봄을 맞는 신앙의 자세를 뜻하는 것이다.

주후 3세기까지는 부활절을 예비하기 위한 금식 기간은 대체로 2일이나 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이레니우스의 진술'을 보

## 고난주간 특집

# 교회사에 나타난 사순절과 그 현대적 조명

김 창 수 목사 (청년 3부 · 제 5 교구 지도)

제일로 지켜졌으므로 이 40일에는 계산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일찌기 4세기 초에 8주 동안 매주 다섯씩 금식하여 실제로 40일 금식이 지켜졌다.

라틴교회에서 이 절기는 '재의 수요일'(혹은 성회례 Ash Wednesday)에서 시작되어 부활절 전

서 중세기의 전 기간 동안 생선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고, 15세기부터는 대체로 우유로 만든 음식도 점점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서방교회에서 사순절의 회개적 성격은 여러 특징들 속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자주색 옷을 입는다든가, 예배에서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은 여러 축제를 금하고 자선을 베풀며 평소보다 더 많이 종교적 행사들에 참여함으로써 회개를 중시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다. 최근에 서방 교회에서는 육체적인 금식보다 이러한 측면들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성공회의 기도서에는 이런 규례가 명문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때로는 이런 일들이 세속의

어떠해야 할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혁케 하는 위대한 사건이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시지만 배척받으셨고, 스스로 택하신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마시셨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보응의 대가를 얻듯이, 그리스도는 고난의 쓴 잔을 통해 금세와 내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명상하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노력에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설교를 통하여,

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고, 신앙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절기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잘 시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서구교회에서는 이 렌트기간에는 여행, 파티, 결혼 등 즐거운 행사는 피하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결시키는 일치된 신앙 자세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 이 절기에 경건한 관습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로, 각자의 신앙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고난을 명상하고 이를 실천시킬 수 있는 삶의 자세 정립을 유도하여야 한다. 교회에서는 각종 신앙 집회를 가지며 교인들의 개인 신앙 성장이나, 혹은 단체적 신앙수련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 기간에 각 급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등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설적인 신앙 역사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사순절은 고대 교회 규례에서 유래

면 분명하다. 사순절을 가리킨 듯한 40일간이라는 용어 '테사라코스테'가 최초로 언급된 곳은 니케아교회법(주후 325년) 5조에서 발견된다. 오랜 기간이 지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각 지역의 관습은 다양하였는데,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3주간이나 2주간의 금식도 '테사라코스테'라고 불렀다.

사순절의 관습은 고대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부활절 때 세례받을 대상자들이 부활절 전 40일이 아닌 40시간 동안 금식하며 지켰던 규례 중 하나였다. 그리고 40이란 숫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에서 시사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후까지 금식 기간은 교회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었다.

동방교회에서 사순절 금식은 7주 동안 지켜졌다. 그런데 이 기간 중 매주 토요일과 주일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금식일은 36일 뿐이었다. 반면에 서방교회에서는 6주 동안 금식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여섯번의 주일은 축

야에 끝났다. 이 '재의 수요일'이란 명칭은 옛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회개자들이 부활절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머리 위에 재를 뿌리던 의식에서 나왔다. 이 의식에서는 자아비하, 그리고 통회와 슬픔의 표시로서 재에 의한 저주 의식도 포함되었다(사 61:3; 단 9:3; 마 11:21 참조).

세례 예비자들이 지켰던 40시간이 우리 주님의 광야 시험 40일간을 기념하여 일반적으로 40일로 변경되어 지켜진 때는 주후 7세기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이를 맨 처음 시행한 것은 겔라시우스 예전서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로마에서부터 서구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초기의 수세기 동안 이 기간 중의 금식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었다. 식사는 저녁 전에 먹는 한 끼만이 허용되었고, 생선이나 육류 심지어는 달걀과 우유로 만든 음식도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9세기 이후로는 이런 관습이 상당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레

## 신앙을 재점검하고 주님의 고난을 명상하는 데 관심 집중

정부당국들에 의해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 2. 사순절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에 와서 사순절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절제와 구제, 그리고 경건과 헌신의 기간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거의 보편화된 모습이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명상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렌트의 절기, 고난기간을 맞는 우리의 신앙 태도는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 삶과 인격 속에 침투하기 쉬운 모든 세속적 죄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우리 심령을 일깨우게 되며, 주를 본받아 우리도 그의 제자로서 거룩한 고난의 길을 가려는 데 헌신하게 된다.

둘째로, 세속적이며 오락적인 행사를 피하는 것이다. 봄철이 되면 교회 안의 각급 기관이나 개인들이 모여 야유회나 그밖의 오락적 행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특별한 절기 중에는 이것을 피하고 신앙적인 행사에 최

오늘날 기독교의 전통 계승을 위하여 신앙인의 구체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신앙의 구체화 작업은 영혼을 향한 우리의 꿈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신앙 자세를 성경적으로 구현해 나갈 때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전진이 있을 것이다. 날마다 경성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심는 각고의 노력이 올해 사순절에 풍성히 나타났으면 한다.

## 위원회를 찾아서 - 교구위원회

## 다락방 활성화에 주력

###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구간사



위원장인 손동운 장로와 지도 목사인 최인근 목사 아래 여러 교구위원들이 결속을 다지고 있는 교구위원회는, 위임목사의 목회방향을 성실히 수행하며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구성전 시대에 권찰회로 조직되어 약 10년 전에 교구위원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년 들어 4개 교구가 증설되어 18개의 교구로 분할 재편되었다. 각 교구는 교구장 장로와 지도 교역자, 각 지역장 장로, 부지역장, 협력다락방장, 다락방장, 권찰, 교구 식구들로 구성되고, 제18교구는 영어권과 일어권 지역이며, 앞으로 중국어권 등 기 타지역으로 더 확장할 예정이다.

매주 4부 예배 후에 가지는 교구모임 시간에는 교구 일꾼들이

모여 교회와 교구를 위한 기도회와 행정에 대한 회의를 갖고 교구원들간의 친목을 다진다.

교구위원회의 올해 목표는 다락방 활성화를 위해 다락방장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데 있다.

다락방장의 신앙 성숙과 다락방의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1부, 2부 예배 후에 이종운 위임목사의 지도로 다락방장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4월 13일에 열릴 교

구간양대회를 통해 마음과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교구 식구들간에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어느 부서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교구위원회에서도 말없이 봉사하

는 성도들이 있는데 바로 다음 아 닌 교구 간사들이다. 매주일 교구간사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성도들의 문의를 성심성의껏 도맡아 하는 간사들은, 교구 교역자들을 보필하며 교역자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돌보고 교구의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교구 성도들에게 문서 연락을 하며 생일 카드 발송 및 유인물 배부 등 여러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숨은 일꾼들이다.

교구위원회는 현재 60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다락방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어 교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가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상에 관하여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관계는 잠시적인 것이지만 부부관계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가정을 갖기 원하는 성향이 남편과 아내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근본적인 부부 관계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들이 모든 일에 완벽하길 원하면서도 힘

도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중학교 1, 2학년 남학생 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 동안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7분 30초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넷째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훈

## > 중등3부 학부모 초청 강좌<

#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상(像)

박 형 용 목사(협동목사·장년 2부 지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봅시다. 좋아하는 것은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적 행위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좋지 않은 면도 의지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로, 예수님과 스테반의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스테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상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는 부부관계입니다.

력자가 아닌 방관자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무언의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삶의 안정감과 이성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라는 영속적인 관계를 바로 잡게 되면 부자관계라는 잠시적인 관계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번의 거짓말은 아버지에 대한 신실성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기의 성공뿐 아니라, 패배도 자녀와 같이 나눌 때에 자녀들에게 용기와 가능성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약속은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

게할 때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훈계할 때는 자제력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먼저 이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무조건 강압적인 태도로 훈계함으로써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좋은 분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입을 막고 천천히 수자를 세어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되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종이에 자녀들에게 말할 내용을 적고 눈을 감고 자녀가 듣고 있는 음성을 자신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훈계할 때 감정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락방 순례

# 찬송 통해 축복 받는 제2교구 방배8다락방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그 봄기운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제2교구 방배 8다락방을 찾아보았다.

박종영 집사님이 다락방장으로 수고하시는 방배 8다락방은 올해부터 8, 9로 분리되어서 12가족이었던 구성원이 7가족이 되었다. 평소에는 6가정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방배 8다락방은 어느 다락방과 달리 찬송으로 큰 은혜를 받는 다락방이다. 초신자들이 많은 관계로 다락방 공과에 수록되는 찬송들을 모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찬송을 배우고 있고, 또 많은 복음성가들을 배우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다락방과 비교해서 찬송에 관한 한 큰 축복을 받은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방배 8다락방의 특징 중 하나는 다락방 식구들이 모두 성경 말씀 암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늦어서 암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자는 다락방장님의 강력한 주장 아래 성경 카드를 매주 두 장씩 암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생활한다.

교회와는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관계로 구역 식구들이 계속 붙어오고 있지만, 그것이 전

사로 인한 배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낀다는 방배 8다락방 식구들은 그래서 특히 배가 운동과 믿음의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평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역 식구가 있으면 예배가 끝난 후 그 식구를 가운데 두고 모두들 통성기도를 하는데,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튼다고 한다.

평소 다락방을 이끄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시는 박종영 집사님은 다락방 공과공부를 진행하실 때 신학적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낀다고 하신다. 그런 점은 혼자서 책도 찾아보고 해서 보충을 하지만 어렵다고 하시며 이종윤 목사가 수요 예배시에 요한복음 강해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다락방장 교육을 하시기 되신다는 발표를 듣고 무척 기뻐하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박종영 집사님은 방배 8다락방 식구들의 사랑의 관계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셨다.

“우리 방배 8다락방은 천정에 있는 관계로 구역 식구들이 게

속 붙어오고 있지만, 그것이 전

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마 28:18).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하나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고전 1:24).

## 4. 결 론

우리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 문 답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2.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까?
3. 이사야 53장을 묵상하십시오.

## 토 의

1. 지난 주일 설교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발표하십시오.
2. 한 주간 사시는 동안 은혜받은 일들을 나누어보십시오.

## 기 도

1.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2. 종헌제자훈련, 교구찬양대회, 주간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3. 우리 민족의 회개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제 13 과 그리스도의 고난

본문: 뱀전 2:21~25

찬송: 141, 147

## 본문연구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합시다.

### 1. 우리들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들은 다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롬 5:13, 14, 6:2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뱀전 2:24).

### 2. 우리들의 모범인 그리스도의 고난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신(뱀전 2:23)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골 1:24).

### 3. 우리들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고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